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JANE AUSTEN PROJECT

가제 : 제인 오스틴 프로젝트

저자 : Kathleen A. Flynn

출판사: Harper Perennial

발행일: 2017년 5월 2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판타지



- * “작가는 제인 오스틴의 매력적인 문체를 살려 위트 넘치는 대화와 함께 은밀한 교류, 사랑스러운 자매지간의 관계를 그려냈다.”- 「북리스트」
- *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제인 오스틴이 살던 시절로 돌아가고픈 꿈을 꾀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작가는 이 데뷔소설에서 그 꿈을 현실로 옮겼다.”- 「AFTER THE FIRE」의 작가 로렌 벨퍼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은 영화나 드라마로도 여러 번 만들어질 정도로 시대를 불문하고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작품만큼 작가의 삶에 관한 관심도 뜨거워서, 제인 오스틴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과 영화도 만들어질 정도다. 마흔을 갓 넘긴 나이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이유와 생전에 쓰다가 만 소설로 알려진 『왓슨가 사람들(The Watsons)』의 결말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먼 미래의 영국에서는 이 오랜 궁금증을 풀기 위한 본격적인 국가 연구사업이 시작된다. 기술의 발달과 지구 대기의 급격한 변화로 시간여행이 가능해진 시대, 두 사람의 학자가 특별한 임무를 안고 제인 오스틴의 사망 2년 전인 1815년으로 떠난 것이다. 과연 두 사람은 제인이 1805년에 부친이 돌아가신 뒤로 내내 결말을 맺지 못했다고 전해지지만 사실 완성이 됐고 스스로 태워버린 것으로 추측되는 미완성 원고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말투, 옷차림, 행동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다른 시대에 똑 떨어져 훈련 받은 대로, 정체를 들키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 틈에 잘 스며들 수 있을까? 그 흥미진진하고 대담한 모험이 시작된다.

수백 년이 지나도 제인 오스틴의 인기가 여전히 식지 않은 영국에서 의사로 일하던 레이첼 카츠먼은 배우 출신 학자인 리암과 함께 ‘왕립 특별사건 물리학연구소’의 부름을 받는다. 두 사람에게 18세기로 돌아가 제인 오스틴의 가족과 가까운 사이가 된 뒤, 제인의 목숨을 일찍 앗아간 정확한 병명과 일부만 전해지는 그녀의 소설을 찾아오라는 임무가 주어진다. 단, 역사가 바뀌지

않도록 과거의 그 어떤 것도 두 사람의 힘으로 바뀌서는 안 된다. 레이첼과 리암은 혹독한 교육을 마치고 마침내 머나먼 과거, 잉글랜드의 시골 마을에 도착한다. 자메이카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다가 갓 돌아온 부유한 집안의 남매로 위장한 두 사람은 오스틴 가 집안 사람들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며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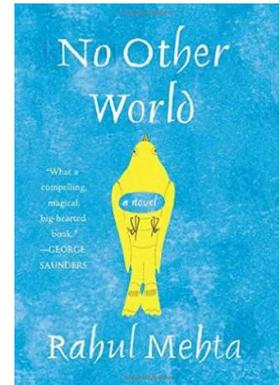
제인이 유독 잘 따르던 넷째 오빠, 헨리와 먼저 친해진 다음 자연스레 집에 초대를 받자는 계획대로 레이첼은 헨리에게 이성으로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작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 현실에서 독립심이 강하고 뭐든 자기 주관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레이첼에게 함께 시간여행을 떠난 리암이 이번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은 것도 견디기 힘든데 18세기 여성상에 걸맞게 조신하고 양전하게 행동하기란 너무나 힘든 과제였다. 게다가 작전의 일환으로 시작된 헨리와의 관계는 그가 레이첼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급기야 그것이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하면서 작전은 더욱 복잡해진다. 시간이 갈수록 리암과의 관계에서도 묘한 핑크빛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남매로 연기 중인 이상 그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다. 이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레이첼과 리암은 자연스레 제인과 가까워지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의사인 레이첼의 눈에 제인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신호가 자꾸만 들어오고, 중요한 작전 때문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자매로, 친구로 생각하게 된 이상 2년 안에 죽게 될 것을 뻔히 알고도 모른 척하는 일은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준다. 그러나 역사를 바꾸면 두 사람이 돌아갈 미래가 어떻게 변해있을지 모르는 이상, 그런 위험한 행동을 실행할 수는 없다. 시간여행이 끝날 시점은 점점 다가오는데, 레이첼과 리암에게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

<저자 소개>

캐슬린 A. 플린(Kathleen A. Flynn)은 바너드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뉴욕타임스」 편집자로 일하고 있으며 북미 제인오스틴 협회 평생회원이다.

제목 : NO OTHER WORLD
가제 : 다른 세상은 없어
저자 : Rahul Mehta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7년 2월 28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성장소설



- * “관심을 집중시키는 신비한 매력을 지닌 따스하고 서정적인 책. 작가는 모든 각도를 포괄하는 시선으로 독자들이 이야기에 깊이 마음을 쓰고, 느끼게 한다.”- 「12월 10일」의 작가 조지 샌더스
- * “작가는 호감 가면서도 복합적인 인물들을 생생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 이미지로 표현했다. 정서적으로 울림을 주는 기억들이 은은하게 묘사된다.”- 「북리스트」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처음 그 아저씨를 본 날부터 키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렬한 감정으로 온 몸을 떨었던 그 날은 벌써 4년 전 일이 되었지만, 열두 살 키란의 마음은 희미해지기는커녕 점점 짙어져만 갔다. 스쿨버스도 더 이상 타지 않았다. 짧게는 두 시간, 길게는 세 시간이 넘도록 걷고 또 걸으며 키란은 몸도 마음도 허공 속을 헤매다가 매일 어스름이 질 무렵, 아직 완전히 깜깜해지지 않아 거리의 집들이 커튼을 치기 전 고요한 시각에 그 집 건너편에 몰래 서서 집 안을 응시했다. 키란의 시선이 닿는 대상은 방에서 숙제를 하거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거나 뒷마당에서 폴짝폴짝 트램폴린 위를 날아다니는 그 집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 시간이면 늘 부엌에 서서 접시를 닦거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일터인 공사장에서 묻은 흙먼지를 털고 있는 사람, 각종 연장을 손에 쥐고 집 이곳 저곳을 손보거나 부서진 물건을 살펴보는 사람, 바로 그 집 아저씨 크리스가 키란이 매일 뚫어져라 쳐다보는 대상이었다. 아침마다 같이 학교에 다니는 켈리 벨의 아버지, 하얀 피부에 금발이 차분하게 덮인 카리스마 넘치는 크리스 벨이 천천히 집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녁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키란은 마침내 커튼이 모든 것을 가릴 때까지 바라보곤 했다.

뉴욕 서부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정착한 인도 이민자 부부의 아들 키란은 훨씬 어릴 때부터 못 사내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누나 프리티가 애지중지 아끼는 인형의 집을 총이나 칼 같은 장난감보다 훨씬 좋아한 것까지는 그러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켈리의 아빠 크리스에게 끌리는 묘한 감정은 분명 또래 친구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다. 그런데 키란의 누나 프리티가 벨 집안의 덩치 큰 아들, 손과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키란의 이 낯선 감정의 정체 가 드러나고 만다. 손과 누나의 전화통화를 몰래 엿들던 키란은 다정하면서도 남자다운 손의 음성엔 열두 살 작은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낀다. 전율이 일 만큼 온 몸이 울리고, 비워진 줄도 몰랐던 가슴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 설레고 두근대는 기분에 사로잡힌 것이다. 애써 감추어왔던 이 감정은 어느 날, 숲 속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날 이후 키란이 수십 년을 죄책

강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게 만든 원흉이 되고 말았다. 그 날, 프리티는 반쯤 옷을 헐벗은 채 나무에 밧줄로 몸이 묶여 있었고 키란은 손이 누나를 가차 없이 대하는 모습과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내버려둔 채 가버리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다. 당장 달려가서 손을 붙들었어야 하는 그 순간, 그에게 느끼는 오묘한 감정 때문에 키란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스스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막힌 배신 행위는 예상치 못한 협박과 맞물리면서 프리티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고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던 키란과 프리티 사이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말았다.

이야기는 그로부터 13년여가 흐른 1998년으로 훌쩍 뛰어넘어 인도를 찾아간 키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성인이 된 그는 인도에서 대대로 성전환자들이 모여 사는 가문에서 한 소녀를 만나 깊은 유대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과거가 왜 그토록 산산조각 난 파편 같았는지, 왜 늘 불안하기만 했는지 깨닫고 뒤늦게나마 조각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한다.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일찍 인지했지만 폭발하는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소년 키란의 성장기를 다룬 이 소설에서 그가 느끼는 혼란스러움은 인도 출신 이민자 가정 전체가 느끼는 혼란과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다. 키란의 엄마는 집안끼리 약속한 대로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해 미국에 건너오면서 겨우 정착했지만 자식들이 생긴 뒤에도 남편을 향한 애정은 좀처럼 생기지 않아 괴로워하고, 가정부, 은행 창구 직원 등 굴욕과 수모를 늘 감수해야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그 허무함과 고통을 증폭시킨다. 책임감과 고독 사이에서 홀로 방황을 거듭하던 키란의 엄마는 결국 같은 동네에 사는 교회 목사에게 처음으로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다. 키란의 아버지 역시 의사로 성공했지만 인도에 내버려두고 온 동생 때문에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한다. 겉으로 보기엔 영락없는 미국인처럼 잘 적응한 이민자처럼 생활하지만 부부의 속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뚫려 있다. 작가는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키란의 삶을 따라가면서 어느 곳에도 제대로 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감정적 소용돌이를 예리하게 묘사한다.

사랑과 소속감,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자기 자신의 열망, 욕망에 대한 책임감이 부딪힐 때 생기는 가슴 아픈 선택, 상처를 이야기하는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라훌 메타(Rahul Mehta)는 데뷔작으로 발표한 단편 모음집 『QUARANTIN』으로 람다 문학상(Lambda Literary Award)과 아시안 아메리칸 문학상 소설 부문(Asian American Literary Award for Fiction)을 수상했다. 「캐니언 리뷰」, 「뉴욕 타임스 매거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등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현재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더 아츠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제목 : SAY GOODBYE FOR NOW

가제 : 잠시만 안녕

저자 : Catherine Ryan Hyde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6년 12월 13일

분량 : 364 페이지

장르 : 소설/ 성장소설



*** 2016년 12월 아마존 문학/소설 부문 이달의 도서 선정**

*** “죄와 구원에 관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 「커커스 리뷰」**

*** “인종차별, 연인, 학대, 그리고 사랑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감동적인 가족 소설. 독자들은 등장 인물들이 사랑과 정의를 찾게 되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라이브러리 저널」**

1959년의 초여름, 신나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첫 날 피트는 아침 일찍 잭과 만났다. 마침내 시작된 방학을 축하하며 호숫가로 낚시를 하러 가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트 쪽으로 걸어오던 잭이 멀리 누워있는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발견하면서 하루 계획은 순식간에 바뀌고 말았다.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길, 갓길에 옆으로 누워 있는 그 개는 얼핏 차에 치여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누워 자는 것 같기도 했지만 피트는 일단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과연 저 알래스카에서 썰매 끄는 개들처럼 두툼한 발에 털이 복슬복슬하게 덮인 대형 견이었다. 피트와 잭이 다가오자 개는 서둘러 달아나야 한다고 느낀 듯 일어섰지만 뒷다리 하나는 아예 바닥에 디디지도 못하고 그나마 세 발로 겨우 섰던 것도 잠시, 푹 쓰러지고 말았다. 어딘가 크게 다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카리스마에 뾰족한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대는 표정을 보자 잭은 저 멀리 달아나버렸다. 피트는 수의사에게 데려다 줘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잭은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 결국 잭 혼자 피트의 낚시 도구까지 가지고 호숫가로 떠나고, 피트는 이 큰 개를 어떻게 옮길지 고민에 빠진다.

사나운 개의 마음부터 얻어야 병원에도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열두 살 어린 피트도 잘 알고 있었다. 엄마가 집을 떠난 뒤, 다른 집 아빠들처럼 저녁에 맥주 몇 캔 걸치는 대신 독한 위스키를 들이 붓는 아빠에게 수시로 두들겨 맞는 생활은 피트로 하여금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려는 생명을 향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누구 개인지도 모르고 달려들어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는 잭의 경고가 충분히 그럴싸한 염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피트는 개를 모른 척 버려둘 수가 없었다. 집에 있는 작은 손수레를 떠올린 피트는 다시 집으로 가서 술에 절어 잠든 아빠 몰래 차고에서 수레를 꺼내는 것까지 성공한다. 겨우 개를 수레에 싣고 마을에 딱 한 명 있는 수의사에게 끄꿩대며 데리고 갔지만, 밀기 힘든 반응이 돌아왔다. 완전히 개도 아니고 늑대 혈종이 섞인 이 위험한 동물을 함부로 치료하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수의사도 치료를 거부한 것이다. 놀란 피트가 갈 곳은 이제 딱 한 곳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과 멀찍이 떨어진 곳에 사는 특이

한 여자 의사, 사람들과 왕래도 없고 혼자 살면서 다친 동물들을 치료해준다는 그 의사선생님이 피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6~7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 진료소를 향해 발길을 돌리던 그때만 해도, 피트의 이 단호하고 용감한 결정이 무려 네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출발점이 되리라곤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루시 박사를 찾아가던 피트는 우연히 낚시 가방을 맨 또래 친구를 만난다. 얼마 전 마을에 이 사온 저스틴이었다. 아빠와 둘이 사는 그 아이는 피트의 상황을 듣더니 아무 갈등 없이 병원까지 같이 가겠다고 나섰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금세 서로가 최고의 친구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목직한 개가 실린 수레를 함께 밀며 루시 박사가 사는 곳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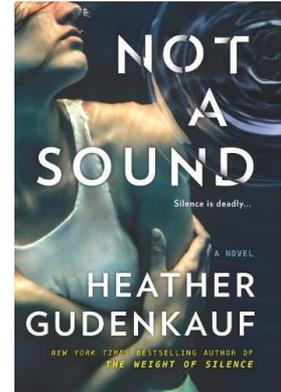
가슴 아픈 과거를 묻기 위해, 잊고 싶은 기억이 최대한 떠오르지 않을 곳을 찾아 텍사스로 떠 나온 루시 박사는 여자가 의사라는 사실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미 수 년째 고독한 삶을 즐기고 있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야생동물들을 정성껏 치료하는 일이 유일한 낙이 된 그녀는 최소한의 생활비와 이 보람찬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정도로만 원하는 사람들을 치료해가며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 살아갔다. 두 번 다시 세상과, 그리고 다른 인간과 깊은 교류는 하지 못하리라 장담했던 루시에게 늑대 개를 데려온 피트와 저스틴은 대대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아버지가 휘두르던 폭력에 시달리는 피트, 흑인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배척당하는 저스틴과 저스틴의 아버지 켈빈, 이혼의 상처를 겪고 세상과 담을 쌓은 루시, 네 사람은 다친 개를 만난 것을 계기로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우정과 연민, 공감을 느낀다. 하지만 백인인 루시와 피트가 저스틴 부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은 50~60년대 텍사스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격렬한 인종차별의 감정은 급기야 폭력 사태로 번진다. 하는 수 없이 마을을 떠나게 된 저스틴과 켈빈, 두 사람과 우정을 넘어서 가족의 정을 느끼게 된 피트와 루시는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절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세상의 벽과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편견을 딛고 새롭게 가족이 되어가는 네 사람의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 소개>

캐서린 라이언 하이드(Catherine Ryan Hyde)는 발표하는 소설마다 비평가들의 찬사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가다. 워너브라더스 사가 케빈 스페이시 주연의 영화로 제작한 베스트셀러 『Pay It Forward(국내 번역서 제목: 트레버)』를 비롯해 『말들의 장례식(Funerals for Horses)』, 『대이변의 기후(Earthquake Weather)』, 『풍차를 쫓아서(Chasing Windmills)』, 『내가 너를 찾았을 때(When I Found You)』 등 서른 권이 넘는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23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출간됐다.

제목 : NOT A SOUND
가제 : 정적 속에서
저자 : Heather Gudenkauf
출판사: Park Row Books
발행일: 2017년 5월 30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침묵의 무게」, 「히든」의 작가가 선보이는 서스펜스 신작
- * 「감동을 주는 스릴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결말까지 쉴 새 없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소설」- 「퍼블리셔스 위클리」
- * 「자기비하와 분노가 뒤섞인 주인공의 대담한 목소리는 전통적인 스릴러 속 여주인공과 다른 신선함과 통쾌함을 선사한다.»- 「커커스 리뷰」

응급실에서 멍들고 찢긴 몸의 상처만큼이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여성들을 돌봐주는 힘든 일을 곳곳이 해내던 아멜리아는 보름달이 뜬 금요일 밤, 또 한 명의 가슴 아픈 피해자와 마주했다. 스테이시라는 이름의 그녀는 아멜리아가 성폭행 증거로 쓰일 타액을 채취하고 시퍼렇게 남은 멍과 베인 상처를 사진에 담는 동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경찰이 너무나도 사적인 질문을 재차 물어대는 동안에도 잘 버텼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이제 귀가했으리라 생각했던 스테이시는 응급실 한 칸에 앉아 뒤늦게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퇴근을 몇 분 남겨둔 아멜리아는 얼른 다가가 병원에서 하루 자고 가는 것이 어떨것냐고 설득해보지만, 스테이시는 괜찮다고 사양한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주차장까지 데려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일어난 아멜리아는 그 아무것도 아닌 배려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고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어두컴컴한 임시 주차장 입구에서 있던 두 사람을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속도를 전혀 낮추지 않고 달려오던 바퀴 소리를 마지막으로, 아멜리아는 그대로 차에 치였다. 이 어처구니 없는 뺑소니 사고로 스테이시는 즉사하고 아멜리아는 청력을 영원히 잃고 말았다.

축망 받는 전문 간호사로, 동기들이 선뜻 말지 않으려 하는 성폭력 전담 간호사로 잘 나가던 아멜리아의 삶은 사고 이후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바뀌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솔로 하루 하루를 연명했고 그 바람에 남편도, 자기가 낳은 딸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운 수양딸도 모두 곁을 떠났다. 병원에서 퇴원했다. 사고는 어쩌다 일어났는지 몰라도 그 뒤에 도미노처럼 일어난 비극은 다 자신이 만든 것임을 잘 알기에, 아멜리아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갔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아멜리아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잘 훈련 받은 개이자 유일한 가족, 친구가 된 스티치와 단둘이 강가 작은 오두막에 살면서 겨우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 새벽마다 작은 보트에 올라 인적 없는 강 한복판에서 노를 젓고 카약을 타는 것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시 사회로 나가기 위해 곧 면접도 잡힌 상태였다. 그런 아멜리아에게 또 다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

강 구석진 곳에서 죽은 여자의 시체를 발견한 것이다. 게다가 목이 졸려 죽임을 당한 여자는 아멜리아가 아는 사람이었다.

그웬 로크,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같이 근무했던 동료이자 한때나마 친하게 지냈던 그녀가 외진 강변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멜리아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사태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더욱 커지고 말았다. 청각 장애인인 그녀가 911에 신고하는 음성이 어느 방송사에 넘어가 무수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화제가 되면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잔혹한 살인자의 표적이 된 것이다. 한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아멜리아는 이혼한 남편의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에 환자 기록을 정리하는 사무직원으로 채용된다. 그런데 종이문서에 적힌 자료들을 디지털 문서로 바꾸던 아멜리아는 어딘가 미심쩍은 사실을 알게 되고, 그웬이 의사들의 세계에서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중대한 비밀을 알아낸 바람에 누군가의 원한을 사고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의혹을 갖게 된다. 그 동안 아멜리아의 새로운 삶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누군가가 저지른 이상한 사건들도 이어진다. 병원은 물론 헤어진 남편까지도 아멜리아의 행동을 의심하고 경계하도록 이간질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대체 누가, 왜 그웬을 죽였고 아멜리아를 사사건건 지켜보며 괴롭히는 것일까? 아멜리아는 진실과 정의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굳게 결심하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서슴없이 자기비하를 일삼고 격렬한 분노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아멜리아는 스릴러 장르에서 잘 볼 수 없는 독특한 인물로 그려져 읽는 재미를 더한다. 동시에 장애와 고통스러운 기억에도 곳곳하고 강인하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통쾌함을 선사한다. 기가 막힌 반전과 결코 느슨해지지 않는 긴장감이 내내 책장에 눈을 붙들어놓는 흡입력 있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헤더 구덴커프(Heather Gudenkauf)는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16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국내에도 번역된 소설 『The Weight of Silence(침묵의 무게)』로 에드가 상 후보에 선정됐다.

NON- FICTION

제목 : SCANDINAVIAN GATHERINGS
가제 : 북유럽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저자 : Melissa Bahen
출판사: Sasquatch Books
발행일: 2016년 9월 5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취미/인테리어·요리



- *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사람, 일상생활을 조금 더 멋지게 만들고 싶은 사람 모두를 위해 북유럽의 안락한 생활방식을 소개한 책” – 『*Fika: The Art of the Swedish Coffee Break*』의 저자 애나 브론스
- * “맛도 좋고 위안을 주는 간식들, 기발하면서도 세월에도 변치 않는 전통적인 장식 요령까지, 북유럽 문화에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잘 포착했다.” – *MyNamelsYeh.com* 운영자 몰리 예아

우리가 스칸디나비아라고 부르는 지명에는 엄밀히 말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만 포함된다.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지리적인 인접성과 사용하는 언어, 역사적 공통점이 많은 핀란드도 비공식적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로 묶이는 경우가 많다. 이 네 나라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북유럽’식 인테리어, 요리, 문화의 본토라 할 수 있다. 북유럽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노르웨이 이민자 출신인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미국의 음식과는 다른 독특한 요리와 간식, 문화를 접하며 자란 저자는 그 전통을 살려 일년 내내 가족 모임이며 파티를 즐긴 엄마, 할머니의 솜씨를 이어받아 이 책에서 스칸디나비아 지역만의 특색과 전통이 담긴 실내장식과 요리법을 소개한다. 40가지 다양한 레시피에는 생일, 크리스마스 같은 중요한 날은 물론 북유럽 사람들이 오후에 즐기는 티타임(피카), 일상적인 브런치 메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요리뿐만 아니라 소박하고 개성 있게 집 안 곳곳을 파티 분위기가 물씬 나도록 꾸미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풍성하게 제시된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지리적 특성상 겨울이 아주 길고, 별을 찌기 힘든 그 길고 어두운 겨울날을 잘 이겨내기 위한 지혜가 이들의 문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추워서 자꾸 움츠러드는 몸과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기분까지 가라앉은 채로 우울하게 보내는 대신, 북유럽 사람들은 밝고 경쾌한 컬러를 솜씨 좋게 활용하여 소박한 재료로 만든 재미 있는 장식품을 집 안팎에 걸면서 기운을 북돋우려 노력한다. 짧기에 더 소중한 여름철은 다양한 해산물과 함께 마음껏 즐기고, 가을이 오면 귀중한 햇볕 아래에서 자란 곡식과 농작물을 거두어들여 긴 겨울을 날 준비를 한다. 크고 작은 유리병을 가득 채운 온갖 저장식품들, 오래 두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과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워지는 다양한 소품을 준비해서 겨울 내내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저자는 파티라는 표현 대신 '모임'이라는 표현을 더 즐겨 사용하면서, 포근함과 안락함으로 요약할 수 있는 북유럽의 일상을 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요리와 간식, 어떤 모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만들기 작품 30가지와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40가지 레시피를 천천히 따라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루한 일상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목차>

서문, 머리말

스칸디나비아는 어디? / 식재료, 기술에 관하여

북유럽의 브런치

숲 속의 티파티

피카를 즐기는 오후

한여름 해산물 파티

전통적인 저녁식사

성 러시아의 날

크리스마스 쿠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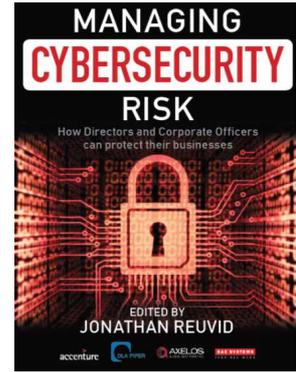
크리스마스 이브의 저녁식사

생일 파티

<저자 소개>

멜리사 바헨(Melissa Bahen)은 미국 오리건 주 서부에 살면서 요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Lulu the Baker'를 운영하고 있다.

제목 : MANAGING CYBERSECURITY RISK
가제 : 사이버안보 위기, 이렇게 관리하라
저자 : Jonathan Reuvid
출판사: Legend Business
발행일: 2016년 11월 30일
분량 : 200 페이지
장르 : 비즈니스



- * 기업 차원의 대비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물론 개개인의 IT 안전전략을 명쾌하게 소개한 책
- *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매력적인 가이드” - 「*Infosecurity Magazine*」

사이버 안보의 위험성은 그저 미뤄둘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안보라는 말에는 국가간 갈등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느껴지지만 상업 분야에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사이버 공간의 침략과 공격은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사고가 일어나는 빈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상업 거래에서 예전보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영국 정보위원회가 발표한 업계의 안보 담당부서 수가 2015년 1,089개에서 2016년 2,048개로 두 배가량 늘어난 것도 이 같은 불안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근거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카드사와 금융기관, 포털 사이트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는 뉴스가 수시로 들려오고 그로 인한 고소와 고발이 줄을 잇는 실정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정보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떤 목적으로 악용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기업 경영 시 발생하는 각종 위협 요소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해온 저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이버안보 대비 전략을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이 같은 사고가 자주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기관과 기업은 오히려 대비책이 마련된 경우가 많은 반면, 중소기업은 큰 피해를 입기 전까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마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저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격과 정보침해 사고가 더 이상 특정 분야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각 업체의 경영진이 안보 강화에 가장 필수적인 IT 기술과 도구, 교육, 전문인력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중소규모 업체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크다. 영국의 경우 민간 분야 총 사업장의 93.3 퍼센트를 그러한 업체들이 차지하고 연간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만 16억 파운드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접촉해보면, 이러한 업체들은 자신들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더 큰 회사들도 많은데 왜 굳이 자신들처럼 작은 회사를 공격하겠느냐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영국의 소기업연맹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미 2014년에 발생한 전체 해킹 건수의 92 퍼센트가

소형 사업체를 타깃으로 삼았으며 공격 횟수는 700만 건에 달한다. 그로 인한 최소 피해액은 2014년 11만 5,000 파운드(우리 돈으로 약 1억 6천 만원), 2015년에는 31만 800 파운드(우리 돈 약 4억 3천 만원)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생활필수품이 되리라고 대다수가 예측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는 것처럼 사이버 안보 또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은 물론, 상업 분야에서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되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가상 공간에서의 철저한 공격 대비 전략을 풀어 서 설명한 유익한 정보서다.

<목차>

서문, 머리말

1부. 사이버안보 – 이제 선택권은 없다

1.1 사이버안보 위기란

1.2 국제 IT 안보분야의 견해

1.3 명성은 잃어버리기 전까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1.4 사이버안보의 위기

2부. 사이버안보와 국제사회의 대응

2.1 금융권의 국제적 협력

2.2 사이버안보의 큰 틀 – 미국 금융계가 채택한 방식

2.3 영국 공공, 민간분야의 사이버안보 지원

2.4 EU와 영국의 사이버안보 발전 양상

3부. 사업체가 대비해야 할 부분 (3.1 ~ 3.4)

4부. 예방 (4.1 ~ 4.4)

5부. 보호와 대응 (5.1 ~ 5.5)

<저자 소개>

조나단 루비드(Jonathan Reuvid)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프랑스 정유회사에서 경제학자로 일했다. 현재는 '위기관리연구소(Institute of Risk Management)와 함께 「Managing Business Risk」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으며 '디렉터스 연구소(Institute of Directors)'에서 「Personal Wealth Management」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다.

제목 : FLATNESS

가제 : 평면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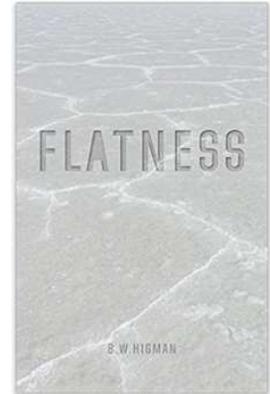
저자 : B. W. Higman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7년 2월 1일

분량 : 264 페이지

장르 : 역사



*** “훌륭한 조사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 떠올린 이미지대로 세상을 어떻게 변형시켜 왔는지 보여준다.”- 캠브리지 대학교 마이클 브라보 교수**

*** “일단 읽기 시작하면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책”- 애버딘 대학교 팀 인골드 교수**

현대 사회는 평평하고 반듯하고 납작한 면으로 공간이 온통 채워져 있다. 우리는 평평한 종이에 글을 쓰고, 문서를 인쇄하고, 평평한 화면에 영상과 문서를 띄운다. 그리고 그런 종子和 화면을 온종일 들여다보고 있다. 평평한 거리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전화기의 작고 납작한 화면을 응시하면서 색깔, 형태는 다양하지만 여전히 평평한 각종 아이콘을 손가락으로 누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일하는 공간을 만든 재료도 모두 평평하다. 운동 경기를 하는 곳, 스포츠를 즐기는 곳 모두 바닥이 평평하다. 이런 물리적인 평평함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인류 역사에서 언제부터, 왜 이렇게 평평함이 우리 주변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 저자는 우리가 일말의 의심도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평평함에 의문을 던지고,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그 역사를 파헤친다.

표면을 고르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거의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 생각과 행동까지 지배하고 있다. 그 시작은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지구가 원이 아닌 평면이라고 보았던 먼 옛날의 이론과도 맞닿아 있다. 저자는 시대를 불문하고 주변 세상을 평평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다 평평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그것이 현대인의 인식과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한다. 더불어 일상생활 모든 것에 평평함을 적용하면서도 정작 평평함에 담긴 의미나 가치로는 ‘개성이 없다’든가 ‘시시하다’, ‘텅 비어 있다’, ‘단조롭다’로 한정하는 모순된 우리의 생각에 반기를 건다. 왜 우리는 평면에 익숙하면서도 지루하고, 따분하고, 활력이나 에너지, 영감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평면을 해석할까? 현대사회에서 시각적 다양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문제도 이와 관련이 있을까? 저자는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평평함에 담긴 기하학적인 개념과 예술, 음악, 문학에 담겨 있는 평평함의 모습, 특성, 의미를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닌, 인간이 굳이 공을 들여 깎고, 만들고, 조작한 인공적인 평면이 우리의 물리적, 정서적인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독창

적인 저자의 분석은 위트와 지혜, 날카로운 통찰과 어우러져 인간의 독특한 특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한다. 단순히 실용성만을 위해 평면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역사와 원인이 특출 튀어나와 읽는 내내 의외의 반전을 느낄 수 있는 신선한 책이다.

<목차>

1. 평면의 개념화
2. 평면의 차원
3. 지구의 역사와 평면
4. 아주 평평한 곳
5. 세상을 평평하게
6. 땅을 평평하게 고르다
7. 납작한 물질
8. 그림에 담긴 평면
9. 평면의 미래

<저자 소개>

B. W. 혁먼(B. W. Higman)은 호주 국립대학교 교수로 자메이카 웨스트인디스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How Food Made History』, 『A Concise History of the Caribbean』 등이 있다.

제목: THE WORD DETECTIVE

가제: 단어 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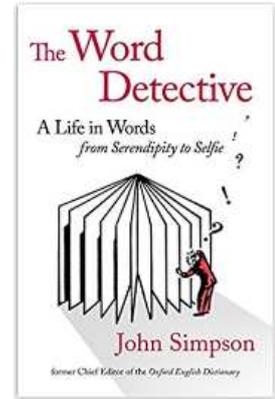
저자: John Simpson

출판사: Little, Brown

발행일: 2016년 10월 13일

분량: 384 페이지

장르: 회고록



- * “사전 편찬이라는 엄격하고 강직한 직업에 관한 진솔한 저자의 이야기에는 매력과 유머가 가득하다.” – 「뉴욕타임스 북 리뷰」
- * “괴상한 단어, 경이로운 단어 모두를 포착하여 우리를 놀라게 한다. 언어와 언어를 초월한 사랑을 모두 경축하는 감동적인 책.” – 「가디언」

언어는 살아 있고 숨을 쉰다. 그리고 언어는 늘 변한다. 지금 우리가 당연한 듯이 사용하는 언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리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전, 옥스포드 영어사전을 만드는 곳에서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어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뜯어보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고민 해온 사람만큼 그에 대한 확실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1976년부터 이 유명한 사전이 종이 사전의 영역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펼쳐볼 수 있는 온라인 사전으로 바뀔 때까지 사전 편찬에 매진해온 저자는 이 특별한 회고록에서 믿기 힘들 만큼 괴상한 단어의 역사를 추적하고 그것을 토대로 명확하고 신중하게,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단어 하나하나의 정의를 써온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사전 하나가 만들어지는 기술적인 과정은 물론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이해한 것을 가장 정확한 말로 바꾸어 설명하려는 세심한 절차를 설명하면서, 저자는 사전에 나온 뜻이 최종적이라거나 무조건 옳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급변하는 세상에서 언젠가 언어도 탄탄한 체계 없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위험한 예측 또한 사실이 아닌 이유를 함께 전한다. 저자의 이야기 속에는 영어라는 모국어에 대한 극진한 애정과 사전을 두껍기만 한 책이 아닌 생생하게 살아 있는 언어의 결집체로 만들기 위해 애써온 흥미진진한 노력이 집약되어 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찾아보는 사전의 단어 하나하나에는 생각지도 못한 편찬자들의 피땀이 녹아 있다. 특히 저자는 영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미국의 어휘를 문화와 정치적 특색을 잘 살려 사전에 담아내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특유의 겸손함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빛나는 재능 덕분에 단어를 찾아내는 아마추어 탐정에서 사전의 일부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거쳐 편집장의 자리에 오른 저자는 인터넷 사전으로 옥스포드 영어사전이 큰 변신을 준비했던 때의 일들도 솔직하게 털어 놓는다.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물론 자금을 지원해온 후원자들,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의 입장이 여러 가지로 맞물려 그 대대적인 변화를 이겨내기까지 무수한 부딪힘과 실패,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마침내 인터넷 시대에 잘 맞는 새로운 사전

으로 재탄생될 수 있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40여 년을 사전과 함께 살아온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소신, 경험을 출판과 사전의 역사라는 객관적인 틀에서의 변화와 절묘하게 잘 섞어서 시대가 변하는 속도를 부지런히 따라가는 언어와 그 언어를 사전이라는 책 한 권에 정리해야 하는 사전 편찬자의 연쇄적인 흐름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단어의 깊고도 다양한 뜻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아주 고상한 단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시시껄렁한 역사가 담겨 있는 경우처럼, 씬 없이 변하고 다시 태어나는 언어의 진면목을 저자의 깊이 있는 통찰과 유머 감각으로 재미있게 밝힌 독특한 회고록이다.

<목차>

머리말. 사건의 배경

1. 뜻밖의 발견, 아마도.
2. 사전 편찬의 기초
3. 단어를 모으는 사람들
4. 가장 긴 여정
5. 아주 불안한 춤
6. 상어가 들끓는 바다
7. 옥스포드 사전의 시대
8. 터널과 비전
9. Gxddbov Xxkxzt Pg lfmk
10. 이상한 나무 꼭대기에서
11. 속임수가 가득한 온라인
12. 시대 풍조
13. 과거가 되다

<저자 소개>

존 심슨(John Simpson)은 37년간 사전 편찬자로 활약하며 옥스포드 영어사전의 편집장으로 일했다.

제목 : THE POSSIBILITY PRINCIPLE

가제 : 가능성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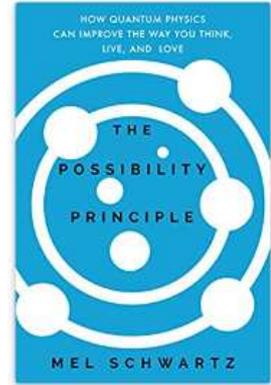
저자 : Mel Schwartz

출판사: Sounds True

발행일: 2017년 9월 1일

분량 : 21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심리학



- * “양자물리학의 원칙을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치유의 원리로 활용한 영리한 책. 진정한 자존감을 키우고 새로운 세계관을 통해 대인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 의 「*Anatomy of the Spirit*」 저자 캐롤라인 마이스
- * “양자가 바탕이 되는 현실과 인간의 경험을 나란히 놓고 우리의 가장 커다란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밝힌 혁신적인 책이다.” 「*One Mind*」의 저자 래리 도시

우리는 수시로 어려운 문제나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와 마주한다. 마음이야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서 그러한 인생의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고 싶지만, 대부분은 구덩이에 발이 푹 빠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자신이 처한 환경, 지워버리기 힘든 과거의 아픔들, 주변 상황이 커다란 덩어리 발목을 부여잡고 있어서 하루하루 몸부림치듯 애를 써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을 해소해주는 치료사로 일하면서도 개인적인 삶은 어찌지 못해 그와 같은 고난을 겪은 저자는 그 헤어 나오기 힘든 덩어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의외의 분야에서 발견했다.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제각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 자신을 비롯해 그 무수한 구성요소들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양자물리학의 원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수학적, 물리학적인 어려운 이론을 굳이 전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중요한 건 바뀌기 힘든 외부세계를 무리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과정을 해내는 방법을 저자는 이 책에서 차근차근 설명한다. 심리 치료사로서는 최초로 양자물리학의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느끼는 한계를 뛰어 넘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스스로 나아가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양자물리학과 개개인의 심적 변화는 언뜻 별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저자는 그 접점이 ‘가능성’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으로 가득한 우주는 바뀌 말하면 그만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우리가 절대 이겨내지 못하리라 느끼는 현실의 두터운 벽과 꼭 막힌 처지도 그저 기분 탓일 뿐,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묵은 신념과 고정관념, 당연하게 받아들인 생각과 행동들을 그러한 원리를 토대로 모두 버리면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고,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 수동적으로 이리저리

두드려 맞는 대신 선제적으로, 단단히 채비를 갖춘 상태로 대할 수 있다.

저자는 우리의 생각에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입김을 불어 넣는 양자물리학의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를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직접 상담치료를 해온 환자들의 사례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양자물리학, 심리학 분야의 광범위한 조사 자료도 탄탄한 근거로 제시된다. 현대인의 고질병이 된 불안감과 초조함, 우울한 기분을 뿌리부터 잘라내고 주어진 순간순간을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팁을 얻을 수 있다.

<목차>

머리말

- 1장. 양자 세계관의 미래
 - 2장. 불확실성을 포용해야 하는 이유
 - 3장. 잃어버린 잠재력을 회복하려면
 - 4장. 우리 모두는 우주와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을 이룬다
 - 5장. 내 머릿속 생각을 깨우는 법
 - 6장. 선택장애를 넘어서서
 - 7장. 병리학이 주는 고통에서 스스로 빠져 나오는 법
 - 8장. 머무르는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로: 진정한 자존감을 발달시켜라
 - 9장. 몸과 마음의 연결을 넘어서
 - 10장. 사랑의 핵심은 얽매임
 - 11장. 친밀한 커뮤니케이션
 - 12장. 의미론이 다가 아니다
- 맺음말. 지금과 다른 곳을 향해

<저자 소개>

멜 슈워츠(Mel Schwartz)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임상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영국 랭카스터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20년 넘게 심리치료사로, 결혼문제 전문 상담가로 일해왔다. 저서로는 『The Art of Intimacy』, 『The Pleasure of Passion』 등이 있다.

제목 : UNE FEMME FRANCAISE

가제 : 프랑스 여성들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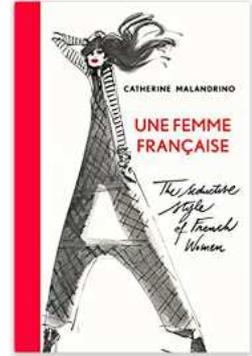
저자 : Catherine Malandrino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7년 8월 1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세계 모든 여성들이 동경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프랑스 여성들만의 특별한 매력을 분석한 책
- * 미국에서 활동해온 프랑스 출신 패션디자이너가 알려주는, 일상생활과 삶 모두를 아름답게 자신감 있게 가꾸는 비결

프랑스 여성들에게는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무심하게 대중꾸민 것 같으면서도 우아함이 깃든 스타일과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행동과 태도는 애써 노력하지 않고 그냥 배어난다. 그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개성 있고 대담하면서도 불편하지 않고 걸모습뿐만 아니라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소신이 뚜렷한 이들의 매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왜 이러한 모습은 못 여성들에게 호기심과 동경을 불러 일으킬까? 프랑스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수십 년간 패션디자이너로 활동해온 저자는 특히 미국 여성들이 프랑스 특유의 스타일과 생활방식에 늘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두 문화를 모두 가까이서 경험해본 패션 전문가의 입장에서, 저자는 외모도 정신도 파리지앵답게 만드는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본다.

미국에서 프랑스 여성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은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 재클린 케네디였다. 재클린은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고 소르본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보내는 동안 프랑스어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을 정도로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백악관에 입성한 뒤에는 프랑스 출신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전속 요리사를 채용하여 생활 공간과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도 프랑스를 향한 애정을 이어 나갔다. 1961년에 부부가 파리를 방문했을 때 재클린은 미국 여성과 프랑스 여성의 매력을 절묘하게 조절한 스타일과 뛰어난 지성으로 프랑스인들로부터 큰 관심과 칭송을 얻었고, 그 매력은 2년 뒤 '모나리자'를 워싱턴의 국립 미술관에 전시하는 역사적인 기회를 만들어냈다. 여성스럽고 단정한 헤어스타일, 흠 잡을 곳 없는 실루엣, 세 줄로 늘어뜨린 로맨틱한 진주 목걸이와 A라인 스커트, 손목이 드러나는 소매와 귀여운 장갑, 작은 상자 모양의 모자는 재클린을 상징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케네디 대통령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재클린의 트렌치코트와 와이드팬츠, 선글라스 등 프랑스 여성의 분위기를 물씬 느껴지는 패션은 계속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스타일이 미국에서 큰 호응을 이끈 이유는 프랑스 여성들의 개성과 매력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스타일로 녹여내고 싶은 수많은 미국 여성들의 바람을 대표적으로 실현해 보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신감과 개성 있는 스타일,

반짝이는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저자는 설명하면서, 그 노력의 뿌리는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겠다는 굳건한 다짐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한다.

유행에 질질 끌려 다니는 대신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법, 약간 위태롭고 남성적이면서 대담한 요소가 사람들에게 강력히 어필할 수 있다는 사실, 파리 여성들이 즐겨 활용하는 헤어와 스킨케어 비결, 향수만 진하게 뿌리는 대신 무심한 듯 섹시하게 꾸미는 방법, 프랑스 여성들이 어지간하면 똥똥해지지 않는 진짜 이유 등 남녀 모두를 매혹시키는 프랑스 여성들의 특징을 들여다볼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1. 꿈
2. 스타일
3. 뷰티
4. 유혹
5. 사랑
6. 영감
7. 대담성
8. 음식
9. 매 순간을 즐기다
10. 랑데부

<저자 소개>

캐서린 말란드리노(Catherine Malandrino)는 프랑스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로 패션스쿨 에스모드(Esmode)를 졸업하고 1988년 뉴욕에서 컬렉션을 처음 선보인 이후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활동해 왔다. 홈쇼핑 브랜드 '랑데부(Rendez-vous)'를 런칭하는 등 계속해서 브랜드를 확장해나가고 있다.